

# 엄마의 3시간, 그 무게에 대하여

##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돌봄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 전업주부는 하루 3시간 더 투입
- 맞벌이 여성, 자녀돌봄 시간 늘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 자녀와 더 많은 시간 보내 좋았지만 ... 전업주부, “혼자만의 시간 절실해”
-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해야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부자들 빈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가 시간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3시간이 더 생긴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잠을 더 잘 수도, 맛집 탐방을 더 자주 할 수도, 혹은 자기계발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하루 24시간 중 3시간을 반드시 '어떤 일'에 할애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본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거나, 잠이 부족해졌다는 하소연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 더, 이 3시간의 일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자는 아니고 후자의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과 학교 등의 문이 닫히면서 전업주부는 무급의 돌봄노동에 하루 3시간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국제이주와 포용사회

센터(CTMS)가 지난해 6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 돌봄 설문조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자녀 돌봄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설문주관

서울대 국제대학연구소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설문기간

2020년 6월 12일~7월 6일

설문대상

만 0~12세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전국 기혼남녀(제주 제외) 1,252명

분석대상

- ① 맞벌이 가구의 남성(357명)
- ② 맞벌이 가구의 여성(355명)
- ③ 홀벌이 가구의 일하는 남성(128명)
- ④ 홀벌이 가구의 여성 전업주부(283명) (총 905명)

## 전업주부의 자녀돌봄, 3시간 32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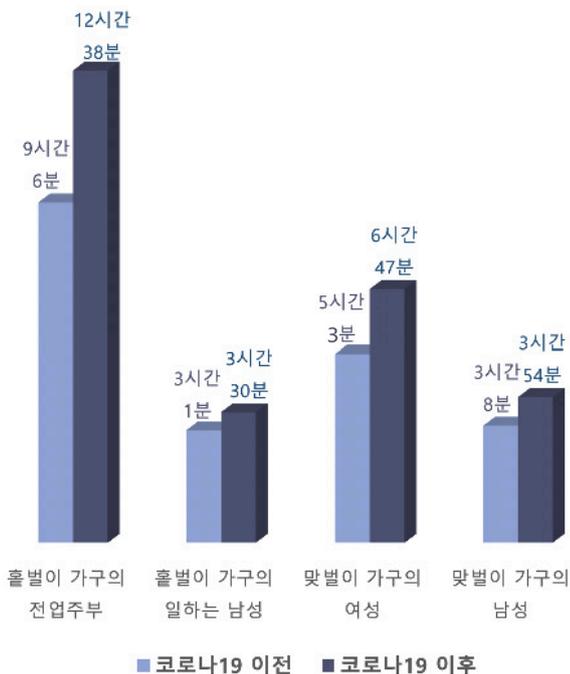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엄마, 아빠의 자녀돌봄 부담은 그 전보다 증가했습니다(그림1 참조).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이는 홀벌이 가구의 여성 전업주부입니다. 무려 3시간 32분이나 자녀돌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여성(1시간 44분), 맞벌이 가구의 남성(46분), 홀벌이 가구의 일하는 남성(29분) 순으로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전업주부가 새롭게 감당해야 하는 자녀돌봄 시간은 일하는 여성보다 2배 이상, 그리고 자신의 남편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준인 겁니다.

일하는 여성(맞벌이 가구의 여성)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일하는 여성이 자녀돌봄에 추가로 들인 시간은 전업주부보다 2시간 가량 적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않으려면 일하는 여성이 자녀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일하는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큰 고통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하는 여성의 남편도 이러한 아내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그림2 참조). 맞벌이 가구의 남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내가 자녀돌봄에 들이는 시간이 “57분 증가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분명 자녀돌봄에 요구되는 시간이 몇시간씩 크게 늘어났겠지만, 아내가 실제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편 전업주부의 남편(홀벌이 가구의 일하는 남성)은 아내의 자녀돌봄 시간이 3시간 가까이 증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업주부의 남편도 아내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자녀돌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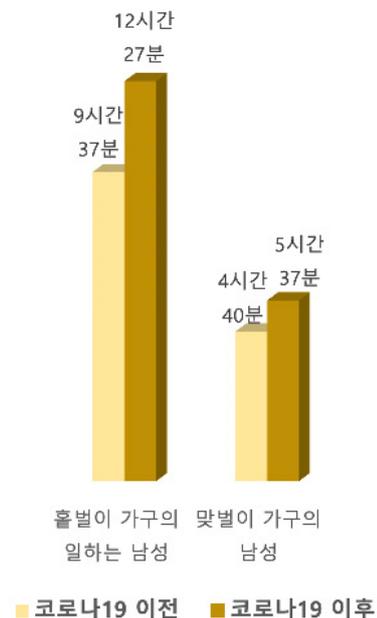
< 그림 1 >

“나의 자녀돌봄 시간은 이렇게 달라졌다”  
(하루 평균)



< 그림 2 >

“내 아내의 자녀돌봄 시간은 이렇게 달라졌다”  
(하루 평균)



## “돌봄은 엄마의 몫”, 코로나19에도 변화 없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이 감당하는 자녀돌봄이 늘어났다면, 그 부담은 엄마와 아빠가 골고루 나눠가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표 참조). 본래 자녀돌봄을 전담해왔던 전업주부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에도 남편보다 자녀돌봄에 더 많이 기여해온 맞벌이 가구 여성의 부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우선 전업주부는 코로나19 이전 자신의 자녀돌봄 부담율이 70%에 가까웠는데, 코로나19 이후 이것이 80%로 늘어났다고 응답했습니다. 무려 10%포인트나 증가했다는 인식입니다. 한편 일하는 여성은 코로나19 전후 자신의 부담율이 각각 51.2%와 51.7%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자녀돌봄 부담이 커졌다고 여겼지만, 아내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전업주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남편의 자녀돌봄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고(14.1% → 12.7%), 일하는 여성은 남편의 자녀돌봄 부담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19.6% → 19.5%) 응답했습니다.

<표> 부부의 자녀돌봄 부담 상황

(주중 평균, 단위 : %)

구분	홀벌이 가구의 전업주부		홀벌이 가구의 일하는 남성		맞벌이 가구의 여성		맞벌이 가구의 남성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 19 이후
본인	69.6	80.2	19.6	22.7	51.2	51.7	24.7	27.4
배우자	14.1	12.7	65.4	68.7	19.6	19.5	45.8	44.4
기타	16.3	7.0	15.0	8.6	29.3	28.8	29.5	2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상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19 상황은 전업주부에게 자녀돌봄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물론 2시간에 가까운 일하는 여성의 자녀돌봄 시간 증가량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녀돌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한국 사회는 가족돌봄, 자녀돌봄을 무급 노동으로 간주하며 그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언제나 행복한 건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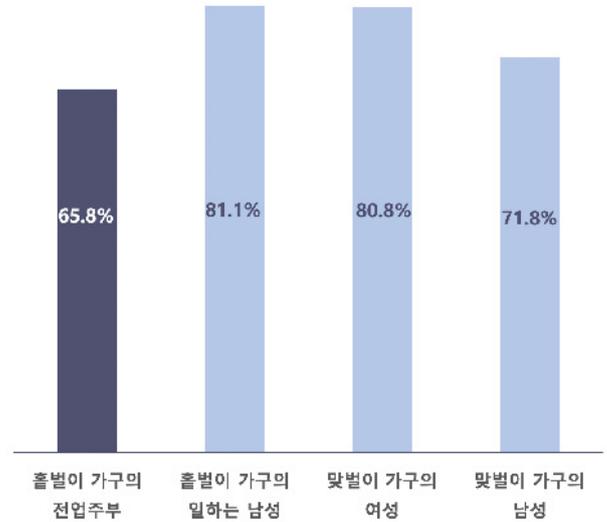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부모들은 이 전례 없는 경험이 “좋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은 부모의 일반적 욕구이기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언제나’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4개 그룹 간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그림3 참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홀벌이 가구의 일하는 남성(81.1%)이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홀벌이 가구의 전업주부(65.8%)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15.3%포인트나 됩니다. “전혀 좋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응답도 전업주부(7.9%)가 가장 높습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도가 높아 자녀돌봄 부담의 증가가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휴식과 위안을 갈망합니다. 자녀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전업주부들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혼자만의 시간’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76.4%). 맞벌이 가구의 일하는 여성들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게 좋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역시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56.5%).

<그림 3> “코로나19 상황으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매우 그렇다’ 및 ‘그런 편이다’ 응답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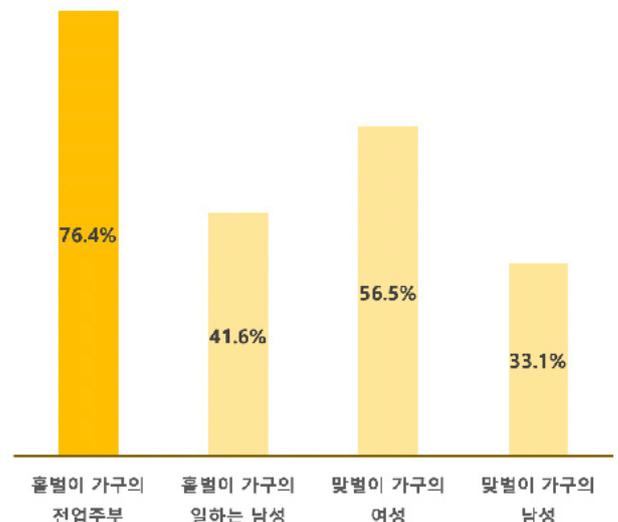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으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전혀 좋지 않았다”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매우 그렇다’ 및 ‘그런 편이다’ 응답 합계)



## 전업주부의 '돌봄노동' 가치, 인정해야

이상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증대시킨 돌봄 부담이 전업주부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업주부란 원래 무급으로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이므로, 이 같은 부담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말아야 할까요?

본 센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에만 관심 가져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무급 자녀돌봄의 주체인 전업주부의 부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의 시간과 노동을 내 것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글: 강지남,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Communications Officer

연구: 은기수,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

디자인: 케이트 스몰,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Designer

본 브리프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2020년 11월호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돌봄의 변화'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는 현재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논문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돌봄의 변화'는 이 연구의 일부로,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추후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TMS Brief 1호



@ctmssnu

[www.ctms.or.kr](http://www.ctms.or.kr)

[ctms.snu@gmail.com](mailto:ctms.snu@gmail.com)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본 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은 불가합니다. 본 자료를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2021)' 등으로 출처를 표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2동 307호